

[98 JCC (예수공동체축제: Jesus Community Celebration)]

특별새벽기도 /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4)

새 계명을 주심

[본문 요한복음 13:31-35]

하용조 목사/ 페이지수: 6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과 함께 한 다락방 공동체에서 성만찬을 통해 친히 공동체의 삶, 공동체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 공동체를 이해하고 깨달을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세상 공동체와 예수 공동체

우리는 사회나 가정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독신주의를 부르짖어도 결국은 그것도 어느 사회나 공동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세상 공동체입니다. 지금껏 우리는 세상의 법칙과 원리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서로 고발하고, 서로 따지고, 항상 교양있게 만나지만 결정적일 때 뒤돌아서고, 한번도 마음을 쥐 본 일없는 공동체에서 살아왔습니다. 거기에는 술친구는 있어도, 정말 내 삶을 나누는 친구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법칙과 원리가 아닌 정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공동체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 것이 우리가 하는 이 세상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세계가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많이 혼돈하는 것은 교회가 그런 공동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교회들은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부는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온누리 공동체나 순공동체에서는 예수공동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나도 이렇게 변할 수 있는가?’ 하며 이런 변화에 스스로도 놀라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관계와 공동체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지위와 신분, 그리고 재정 상태와 지적인 배경을 떠나서 우리가 한 형제와 한 자매가 될 수 있다는 무한한 가능성을 조금씩 배우게 되는 공동체입니다. 피를 나누지 않은 사람들이지만 이렇게 친밀하고 신비스러운 관계를 가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친히 3년 동안 보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자들과 떠나는 자리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공동체와 순, 그리고 인간 관계의 원형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렇지만 죽기를 거부한다면 한 알 그대로 있을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는다는 것입니다. 과거와 옛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가장 비극적인 것은 옛 사람이 죽지 않고 예수 믿는 것을 따라 가는 것처럼 곤혹스런 일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적인 클럽은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사람들끼리 만나서 밤이 새도록 교제를 나눌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돈 많은 사람도 있고 남부럽지 않게 높은 지위의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전혀 다른 세계며 다른 관계입니다. 그것은 돈으로나 권력으로 살 수 없고, 세상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관계입니다.

세상에 많은 부부가 있지만 성령 받은 부부와 성령 받지 않은 부부는 다릅니다. 교양있고 멋지게 살지라도 그것은 다른 세계입니다. 저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을 녹이시고 바꾸신 삶입니다.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달라지고, 돈 쓰는 가치관이 달라지고, 사람 보는 눈이 달라지는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 없던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을 사랑하면서 놀라워 하며 사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이 떨어져 땅에서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썩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옛날 모습 그대로 있게 됩니다.

섬김의 공동체 보여주신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공동체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말로 설명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과 밥을 먹다가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셨습니다. 다 씻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이렇게 살라. 높을수록 낮아져라. 낮은 사람을 섬겨라. 가난한 사람들을 섬겨라. 섬길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 할 지라도 그의 발을 닦아 주어라. 섬김이 공동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Servant Leadership이란 말을 말을 씁니다. ‘진짜 지도자는 종이여 섬기는 사람이다. 섬김을 받고자 하는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언어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는 폭력적입니다. 남을 지배하고, 충고하고 남에게 상처를 주는 언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치유하는 언어를 쓴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언어 속에는 너무나 많은 폭력이 있습니다. 언어의 폭력처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내 태도도 바꾸어야 하지만 내가 사용하는 언어와 단어까지도 바꾸어야 합니다. 그리고 표정도 바꾸어야 합니다. 남을 따지고 의심하는 표정들을 가지고 살아 왔습니다. 우리는 걷는 모습부터가 벌써 위압적입니다. 세상에서는 경쟁해야 하고, 남에게 이겨야 하고, 남에게 속거나 당하지 않아야 하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었습니다.

니다.

배신을 넘어 서는 공동체

예수님은 참된 공동체는 배신을 경험한다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배신의 벽을 넘어서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막론하고 모두가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내 인생에 칼질하는 사람들,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며 뒤에 가면 결정적으로 내 인생에 피해를 주는 사람들을 만나고 삽니다. 예수님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배신은 항상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당신이 배신 당했을 때 너무 화내지 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가롯 유다에게 떡 조각까지 주었지만 결국 떠나고 예수님 곁에 붙어 있다가 떠났습니다. 31절입니다.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열 두명 가운데도 배신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부족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야 본의 아니게 다른 이들에게 상처도 주고 원망들을 만한 일을 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이야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예수님도 배신을 당했습니다. 결국 가롯 유다가 떠났습니다.

저는 어제 배신의 두가지 유형을 말씀드렸습니다. 가롯유다형 배신과 베드로형 배신입니다. 가롯 유다는 자살했고 영원히 예수님 곁을 떠났습니다. 그 실수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위해 제자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실수가 없는 인간은 없습니다. 그 실수가 하나님을 영원히 떠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그리고 예수를 믿어가는 과정에서 항상 잘 할 수는 없습니다. 잘 가다가 어떤 때는 의심하고, 어떤 때는 시험에 들고, 어떤 때는 낙심하고, 어떤 때는 기대했던 일들이 잘 이뤄지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여러분이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날 때가 제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때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가 축복의 때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성숙을 줍니다.

여러분, 받는 것은 값싼 축복입니다. 그러나 주는 것은 값비싼 축복입니다. 손해보고 억울함을 당하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 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당신을 핍박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기피할 것입니다. 저 사람을 만나봐야 별 볼 일 없다고 생각 하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가 떠난 후에 예수님은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었다’ 고 하십니다. 영광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또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길 원한다’ 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죽을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배신은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곧 예수님의 죽음이 가까이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죽음만큼 영광스런 일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헌금하고 시간을 바치고 ‘다 주께 영광을’ 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주께 영광을’ 이라고 고백하십니다. 그 영광의 깊이가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이신 예수님

32절을 보십시오.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라는 생각을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기도를 들 어준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 말은 오천명을 앓혀 놓고서 겨우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손에 들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마음에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건 이전에 기적이 먼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 속에 기적이 먼저 일어나길 원합니다. 아직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미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승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 이미 기적과 믿음이 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과 고기를 나눠줄 때 이상하게도 떤면 뿔수록 더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이런 풍성한 삶을 살 자격이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며 하나님도 자기를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라’ 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셨습니다. 부모의 눈치를 보고 조심하는 자녀는 부모에 대해 상처가 있는 자녀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깊은 신뢰가 있는 관계는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완전히 하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응석을 부릴 정도로 가까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서워 할 분이 아니라 경외할 분이십니다. 33절을 보겠습니다.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예수님께서 이미 죽음을 초월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천국가는 것을 ‘내가 잠시 여기 있으나 곧 간다’ 라고 마치 옆방으로 들어가듯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해는 죽음이 너무 가까이, 삶의 한 복판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새 계명으로 ‘사랑’ 을 주심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의 전부입니다.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개인이나 공동체가 가져야 할 결정적인 것을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 한다면 ‘새 계명’ 인데 그것은 곧 ‘서로 사랑하라’ 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의 전부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 중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서로 사랑하라, 두 번째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세 번째는 성령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서로 싸우고 경쟁하고 미워하는 관계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변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생명은 ‘사랑’ 입니다. 인간 관계의 생명은 ‘사랑’ 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랑

이 말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사랑할 만한 자격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남을 사랑할 만한 그런 수준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뒤돌아 서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 안에는 질투와 경쟁과 독점력과 이기심과 자기의 쾌락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이런 인간의 사랑을 미화합니다. 하지만 실상 인간의 사랑은 이렇게 멋지지 않습니다. 아마도 로미오와 줄리엣도 오래 살았으면 부부 싸움 많이 했을 것입니다.

제한적이고 경쟁심 많고 자존심으로 사는 인간이 과연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하는 사랑이었으며, 목숨을 버린 사랑이었으며, 원망이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 메시지를 잃어버리고 다른 것들을 모두 지킨다해도 이것은 기독교가 아닌 이단일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다 이단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아무리 좋은 봉사를 하고, 아무리 덕스러운 일을 했다고 해도 그것이 진짜 사랑이 아니었다면 하나님과 우리는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정말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사랑인가? 조건 없

는, 대가 없는, 순수한 사랑인가? 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랑인가 아니면 인간적인 사랑인가를 늘 생각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민족주의적인 애국심과 하나님의 사랑은 서로 다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넘어 서기가 어렵습니다. 믿음이 적을 때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기도하다가 믿음이 깊어지면 자기 부인과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조금 더 깊어지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실상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존경할 만한 사람입니다. ‘나라’는 비판하기는 쉽지만 사랑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라를 위하는 것도 결국 ‘자기’ 나라이기에 사랑하는 이기적인 요소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나와 상관 없는 나라와 백성을 위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우리는 안중근 의사나 유관순처럼 독립운동가들이나 민족주의자들을 존경합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사에 다른 민족을 그렇게 사랑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기민족을 버리고 이방인처럼 다른 민족에 가서 자기뼈를 거기에 묻으며 평생토록 산다는 것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종류의 사랑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랑입니다. 저는 일본의 가마와 요이꼬라고 하는 하천풍원을 존경합니다. 그는 사랑의 사람입니다. 진짜 사랑은 혈육이나 민족을 초월합니다. 진짜 사랑은 이해 관계를 초월합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세계, 이상세계의 원리입니다. 어거스틴이 신국론에서 이 세상의 원리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 이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가정, 삶, 직장의 윤리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예수공동체의 마크

35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제자의 마크는 무엇일까요? ‘서로 사랑하는 것’ 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계속 이런 기도를 하십시오. ‘주여,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땅에서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듯이 나의 옛 사람이 죽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장례식을 치르길 원합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주님 제가 낮은 자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섬길만한 가치가 없다고 하는 사람도 섬길 수 있도록 사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내 삶에서 배신자를 만나도 놀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말입니다.

* 출처 - 온 누 리 신 문